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나는
사역구문 분석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조혜진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나는
사역구문 분석

지도교수 박순혁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조혜진

조혜진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8월



주심 영어학박사 전춘배 (인)

위원 언어학박사 John Stonham (인)

위원 영어학박사 박순혁 (인)

목 차

영문초록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2 연구의 구성과 제한점	2
II. 이론적 배경	4
2.1 사역동사 분류	4
2.2 사역동사 분류에 대한 선행연구	8
2.3 사역구문의 도상성	11
2.4 거리에 관한 통사적 분석	14
III. 교과서 분석	20
3.1 연구대상 및 방법	20
3.1.1 연구대상	20
3.1.2 연구방법	21
3.2 사역구문 분류와 분석	21
3.2.1 교과서별 사역구문 분류	21
3.2.2 사역구문 분류별 분석	23

3.3 분석적 사역구문	32
3.3.1 (to)-부정사 구문	32
3.3.2 소절 구문	41
3.4 분석에 대한 정리	46
IV. 결론 및 제언	48
참고문헌	51



An analysis of the causative constructions i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Cho Hye J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ausative constructions in the first-year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Its main goal is t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and syntactic form in terms of a theory of Iconicity developed by Haiman (1980, 1983) and Givón(1985, 1993). Korean students usually try to memorize some grammar rules in class without understanding what they mean and how they should accept their meaning. So I try to show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Distance Principle, which is one of the main principles of Iconicity theory, for causative constructions.

At first, three kinds of causative constructions were observed and compared: the lexical causative, the morphological causative, and the analytic causative. According to the scale of the Distance Principle (Haiman 1983), it was shown that the linguistic distance between the expressions of cause and effect was largest in the analytic causatives,

the next in the morphological causatives, and shortest in the lexical causatives. They were analyzed in meaning semantically, and then I might say that the length of the formal distance between the cause and the effect corresponds to the conceptual distance between them. Then, if the linguistic distance is greater between the two elements, the causer will have more influence on the causee, depend less on the causee, and achieve greater success in manipulation. I show this using the sentences in the high school textbooks.

Furthermore, it was possible to explain the difference of meaning in causative verb complements of the analytic causatives, because there were linguistic distances between bare and to-infinitive complements, and between small clauses and to-infinitive complements. But they are not explained on the scale of Haiman and Givón, so I tried to analyze them syntactically. On the syntactic ground, I extend the Distance Principle of Iconicity to complementation and confirm the meaning difference between them.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Iconicity theory, it is advisable that the causative constructions should be taught to students with respect to both their syntactic and semantic aspects. That will help students to understand the meaning sense of those causative constructions better and use them properly.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 2 외국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학습한 많은 학습자들은 중, 고등학교 교실에서 문법 규칙을 배우고 암기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외운 지식들은 학습자의 머릿속에 유의미하게 남아있지 않아서 말하거나 쓰기 등의 언어의 출력에서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이해 없이 자의적으로 언어를 학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어규칙을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해하고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외국어 학습에 있어 학습자들이 외국어의 문법 규칙으로 흔히 암기하는 통사적인 규칙들 중 많은 부분들이 의미적으로 설명 가능하고, 이는 사역구문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실수업에서는 let, have, make가 사역동사이고 원형부정사를 보충어로 취한다는 문법적 규칙만을 암기 하게 할뿐 이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이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에 있어 학습자들이 그 언어 구조와 의미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이해한다면 더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 중에는 Haiman(1980)의 도상성(iconicity)이 있는데, 그는 언어의 형태와 그 의미 가운데 자연스러운 대응관계, 즉 필연성을 인정하며 사고의 구조는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실제의 구조를 반영 한다

고 주장한다. Givón(1985, 1993) 역시 도상성 개념을 이용하여, 사역의 주체와 대상이 의미적, 기능적으로 더 가까울수록 어휘적, 통사적으로 더 인접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언어의 구조에 따른 의미 차이의 또 다른 시도에는 통사적 접근도 있다. 황규홍 & 민지영(2006)은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구문의 비정형 보충어절에 관한 연구에서, 어휘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 거리적 차이를 명확히 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통사적인 측면에서 지각, 사역 구문의 비정형 보충어절을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차이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나는 사역구문을 분석적, 의미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사역구문의 분류와 그 분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둘째, 사역구문에 대한 도상적, 통사적 분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다. 셋째, 교과서 안에서 사역동사를 분류하고 도상성 이론을 중심으로 그 분류 간의 구조와 의미상의 차이를 분석하여 규명한다. 넷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사역 구문의 학습 시 그 의미와 형태를 학습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1.2 연구의 구성과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Comrie(1985)의 사역구문의 분류와 각각의 특징들, 그리고 사역동사의 분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도상성의 개념으로 사역구문을 분석

한 Haiman(1980)과 Givón(1985, 1993)의 이론을 살펴보고, 사역구문의 요소들 간의 불분명한 거리의 차이에 대한 통사적 규명을 시도한 황규홍 & 민지영(2006)의 주장을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교과서 내에 나타나는 사역동사를 분류하고 그 분류상의 특징들을 살펴본다. 사역동사의 분류에 따른 의미적 차이를 도상성의 원리를 근거로 분석한다. 분석적 사역구문의 통사적 양상과 이에 따른 의미차이를 분석한다. 제 4장은 교과서 분석 결과의 의의와 교실수업에서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본 연구를 실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영어 교과서 중 5종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으므로 전종의 교과서 분석 결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고, 교과서 내 Reading 텍스트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교과서의 다른 영역까지 확대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둘째, 사역구문의 정의와 그 범위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학자의 정의를 따르느냐에 따라 분석적 사역구문에서 보충어절로 원형 부정사를 취하는 경우만을 사역구문으로 볼 수도 있고, 타동성이 강한 타동사 전체를 사역구문으로 볼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Comrie의 분류 방법을 취하고, 어휘적 사역구문의 경우에는 사역자가 피사역자에게 영향을 주어서 피사역자의 위치나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 것만을 사역으로 보는 Thompson(1987)과 Saif(1989)의 의견을 따랐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를 더 넓은 범위의 사역구문으로 확대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셋째, 비정형 보충어절을 분석하는 경우 지각구문과 사역구문을 함께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사역구문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비정형 보충어절 전체로 내용을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2.1 사역동사 분류

사역동사의 정의와 분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고 범위 또한 다양한데 Thompson(1987)과 Saif(1989)는 다음의 경우를 충족시키는 동사들만 사역동사로 규정하였다. (이기동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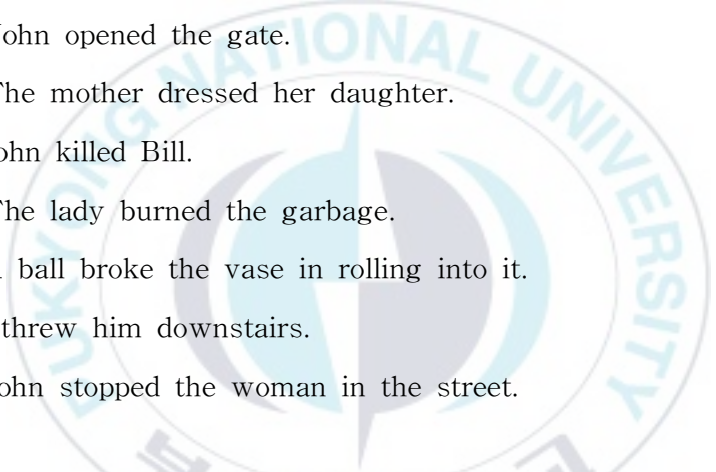
- (1) a. 타동사이다.
- b. 사역자와 피사역자가 존재한다.
- c. 피사역가 반드시 상태의 변화를 수반한다.

이러한 사역동사의 정의를 가지고 다양한 범주의 사역구문 분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 중 Comrie(1985)는 사역구문을 형태적, 의미적 특성과 각 구문의 통사적 특징에 따라 어휘적 사역구문(lexical causatives), 어형적 사역구문(morphological causatives), 그리고 분석적 사역구문(analytic causatives)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가. 어휘적 사역

어휘적 사역구문은 동사 자체만으로 사역구문을 형성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 형태의 사역동사들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사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원인과 결과가 그 어휘 속에 모두 함유되어 어휘의 의미 분석을 통해서만 사역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런 동사의 예로는 burn, sell, roll, break, float, open, close, split, empty, melt, raise, stop, lay, kill, destroy, demolish, bounce, bend, warm, move, shine등을 들 수 있다. 아래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어휘적 사역구문에서는 사역자가 피사역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런 사역을 표현하기 위해 부가적인 어근과 접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 
- (2) a. John opened the gate.
b. The mother dressed her daughter.
c. John killed Bill.
d. The lady burned the garbage.
e. A ball broke the vase in rolling into it.
f. I threw him downstairs.
g. John stopped the woman in the street.

생산성의 관점에서는 어휘적 사역동사는 생산성이 가장 낮다. 때문에 어휘 자체가 한 어휘 요소에 의해 종합적으로 표현되어 형태적, 통사적으로 분석이 어렵다.

나. 어형적 사역

어형적 사역구문은 명사나 형용사에 en-, -en, -ify, -ize, -ate등의 접사가 붙어 동사를 형성하여 사역구문에 사용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역을 형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런 접사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보통 굴절어에

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어형적 사역동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3) a. -ate가 붙는 경우: invalidate, liberate
- b. en-가 붙은 경우: endanger, enlarge
- c. -en가 붙은 경우: soften, lighten, frighten, widen, fasten,
 blacken, loosen, brighten
- d. -fy가 붙은 경우: justify, purify, beautify, classify, purify
- e. -ize가 붙은 경우: centralize, equalize, harmonize,
 carbonize, publicize

아래의 예는 어형적 사역동사를 포함하는 사역구문이다.

- (4) a. He enslaved them.
- b. He simplified the matter.
- c. Henry lengthens his paper every day.
- d. He deepened the wells as you went up the road.
- e. He heightened the fence toward the back of the yard.
- f. The workers widened the road. (Sweetser 1997)

이처럼 어형적 사역동사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태소의 결합을 통해 사역의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이 부류의 동사들은 대개 (4a)처럼 명사 slave에서 또는 (4b~f)에서처럼 형용사 simple, long, deep, high, wide등에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사역동사의 유형 중 비교적 생산성이 높다.

다. 분석적 사역

분석적 사역구문은 통사적 사역구문이라고도 하는데¹⁾ 이른바 전통문법에서 사역동사로 일컬어지는 make, let, have, get, help, cause to등을 포함한 force, cause, permit 등의 동사가 포함된다. 분석적 사역구문은 어휘적 사역구문이나 어형적 사역구문에서처럼 단일 동사나 접사의 결합만으로는 사역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보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즉, [make NP + die]에서처럼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make)과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die)이 각각 독립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분석적 사역구문의 예시이다.

- (5) a. She had Tommy go to school.
- b. I made John cross the street.
- c. We get him to prepare for our journey.
- d. I helped him find his things.
- e. He caused them to lie down.

분석적 사역구문은 각 사역동사 자체의 의미에 따라 사역의 의미도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make, force등은 강요적인 의미를 지니고, have, get등은 사주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let, permit등은 허용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cause등은 이 모든 해석을 포괄한다. 분석적 사역은 사역동사에 따라 보문의 동사가 원형부정사로 나타나는 경우와 to부정사로 나타나는 경우의

1) make, let, have 등을 이용한 사역구문은 학자에 따라 장형사동(양인석, 1972), 통사적 사역(박정운, 1994), 분석적 사역형, 우언적 사역형 등 용어가 다양하다.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make, have, let의 경우 원형부정사만이 나타날 수 있고 get, force, permit, cause의 경우 to부정사가 나타나는 통사적인 특징을 보인다.

2.2 사역동사 분류에 대한 선행연구

영어 사역구문의 분류에 관하여 많은 통사적 의미적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McCawley(1968)의 생성의미론적 접근법이다. 생성의미론적 분석은 어휘적 사역구문과 분석적 사역구문이 동일한 의미구조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미적인 특징과 통사적인 현상이 같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겠다.

- (6) a. John felled the tree.
 - b. John caused the tree to fall.
 - c. John caused the tree to become not standing.
- (7) a. The door opened.
 - b. The door is open.

여기서 생성의미론자들은 (6a)는 이미 그 문장 속에 (6b)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6a)을 (6b)나 (6c)로 바꾸어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7a)도 마찬가지로 (7b)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술어인상(Predicate Raising)을 통해 두 구문이 구분되었기 때문에 두 구문 사이에는 실질적인 의미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휘적 사역과 분석

적 사역구문이 술어 인상을 통해 결국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이러한 주장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Fodor(1970)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워 생성언어학자들의 분석을 반박하였다. 첫째, 아래의 예에서 (8)에서처럼 분석적 사역구문의 경우에는 사역자와 피사역자가 모두 do so의 주어가 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9)의 경우에는 사역자만이 do so의 주어가 될 수 있다. 즉 (8)에서의 do so는 John의 행위나 Mary의 행위 모두가 가능하지만 (9)의 do so는 John의 행위만을 의미한다.

- (8) a. John caused Mary to die.
b. John caused Mary to die and it surprised me that he/she did so.
- (9) a. John killed Mary.
b. John caused Mary to be killed and it surprised me that he/ *she did so.

둘째, 시간 부사와 관련하여 두 사역구문은 차이를 보이는데 (10a)는 분석적 사역구문으로 Bill이 사망한 날을 의미하는 on Sunday와 Bill의 죽음을 유발한 사건이 일어난 시간 부사 on Saturday를 모두 허용하지만 (10b)에서는 둘 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없다.

- (10) a. John caused Bill to die on Sunday by stabbing him on Saturday.
b. *John killed Bill on Sunday by stabbing him on Saturday.

셋째는 중의성의 문제로 분석적 사역구문은 중의성을 가지는 반면 어휘적 사역구문은 그렇지 않다. 다음의 예에서 (11a)의 경우 혀를 삼킨 사람에 대한 중의성이 존재하는 반면 (11b)의 경우에는 John이 Bill의 혀를 삼킨 경우만 해당된다.

- (11) a. John caused Bill to die by swallowing his tongue.
- b. John killed Bill by swallowing his tongue.

Fodor의 이러한 주장은 생성의미론자들의 주장에 반대하여 어휘적 사역과 분석적 사역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사적인 입장에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 외에도 Shibatani(1975)도 사역 구문을 분류하였는데 그는 어형적 사역을 어휘적 사역과 같은 것으로 보아서 사역을 어휘적 사역과 분석적 사역으로 나누고 그 사이에 의미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어휘적 사역구문은 일반적으로 아래 예문 (12a)에서처럼 직접적인 의미를, 반면에 통사적 사역구문은 일반적으로 (12b)에서처럼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미를 타나낸다고 하였다.

- (12) a. I dressed Mary.
- b. I made Mary dress.

위와 같은 의미적인 차이 분석을 통하여 Shibatani는 어휘적 사역구문의 기저구조는 하나의 절로 이루어져 있고 통사적 사역구문의 기저구조는 두 절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13)의 bring it about의 it은 'the metal harden'을 나타낼 수 있고 (14)에서의 do so도 동사구 '(the glass) melt'로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한다.

(13) John finally hardened the metal, but it took him a year to bring it about.

(14) John melted the glass though it surprised me that it would do so.

Shibatani는 hardened나 melt를 모두 어휘적 사역으로 분류하여 기저구조에서는 한 절이라고 분석하였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위의 'it'이나 'do so'가 각각 동사구나 동사를 나타내는 통사적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Shibatani는 어휘적 사역과 어형적 사역이 하나의 절을 가지기 때문에 어휘적 사역으로 통일하여 나타내었으나 이렇게 'it'이나 'do so'로 나타내보면 분명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2.3 사역 구문의 도상성

언어의 도상성(iconicity)은 자의성(arbitrariness)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언어의 형태와 의미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말한다. 언어의 도상성은 크게 네 가지 원리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양의 원리, 근접성의 원리, 순서의 원리, 거리의 원리가 그것이다. 그 중 거리의 원리는 표현형태의 길이와 개념의 직접성이 비례관계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심리적으로 함께 속해 있는 것은 통사적으로도 서로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Haiman(1983: 782)은 개념의 근접성이 언어 형태의 근접성과 비례한다고 설명하면서 언어표현상의 거리를 다음과 같은 척도로 나타내었다.

(15) (A) X # # Y

(B) X # A # B # Y

(C) X#A#Y

(D) X#Y

(E) X+Y

(F) Z*2)

Haiman(1983; 783)

Haiman에 따르면 X와 Y사이의 언어표현의 거리는 (A)에서 (F)로 갈수록 줄어든다. 그리고 언어표현의 거리가 줄어들면 내용상의 개념적 거리도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적 거리의 원리를 사역구문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이 거리의 정도가 사역구문에서는 원인(cause)과 결과(effect)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X를 원인의 표현으로 Y를 결과의 표현으로 가정하면 사역구문의 원인과 결과 사이의 개념적 거리를 알 수 있다.

원인과 결과 사이의 개념적 거리가 가까울 때는 사역자가 강한 영향을 미칠 때, 피사역자가 보다 의존적이고, 많은 조작이 결과에 가해질 때이다. 이런 경우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보다 강한 결속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사역구문의 형태 중 결속이 가장 강한 경우는 척도 (F)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동사의 보충어가 동사에 하나의 어휘항목으로 융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어휘적 사역구문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척도 (E)는 형태적 접사가 어휘항목에 붙어서 나타나는 경우이며 사역구문에서는 앞서 살펴본 형태적 사역구문이 이에 속하고, 척도

2) +는 형태소경계를, #은 어휘경계를, ##은 절 경계를 나타낸다.

(D)는 형태소 경계를 넘어서 단어경계까지 포함하는 경우로 사역구문에서는 분석적 사역구문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Haiman의 주장에 의하면 다른 구조를 가지는 이런 사역구문들은 의미적으로도 구별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 사이의 형식적 거리가 개념적 거리와 상응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Haiman(1983: 782)은 표현의 길이가 다른 두 가지 사역(causative) 구문을 예로 들고 있다

- (16) a. I felled the tree.
b. I caused the tree to fall.

그는 (16a)는 행위자가 직접 나무를 넘어뜨린 경우이고, 반면에 (16b)는 행위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나무가 쓰러지도록 한 간접적인 상황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즉 (16a)는 (16b)에 비해 행위와 결과 사이의 개념적 거리가 가깝고 언어표현 또한 가깝게 표현된다는 것이다.

또 거리의 원리는 주절의 동사 뒤에 오는 종속절에서도 설명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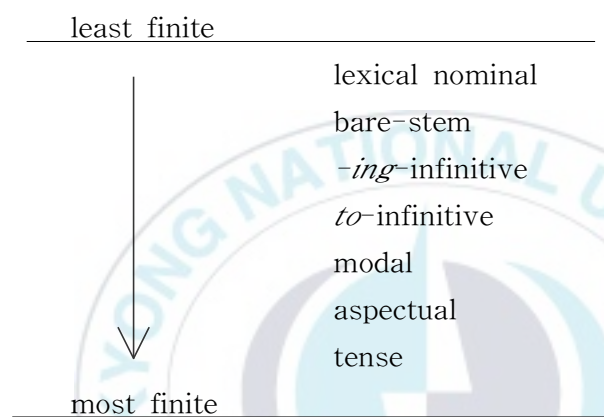
- (17) a. I made her happy.
b. I want her to be happy.
c. I hope that she would be happy.

여기서 내용적으로 (17a)경우가 주어가 그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 (17b)의 경우 간접적인 영향을 (17c)의 경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17a)의 경우 her과

happy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 도상성의 원리가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Givón(1993)도 영어 동사 형태의 정형성에 대한 척도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도 사역동사의 보충어절의 의미상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18) Givón's (1993: 22) Finiteness Scale of English Verb-forms:



Givón은 위의 척도에서 모충어적의 정형성은 보충어절 상의 동사의 정형성에 종속되고 정형성은 척도의 아래로 내려올수록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 이 정형성은 언어적 거리와 상응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를 따르면 (17)에서 (17a)에서 언어적 거리가 가장 짧고 (17c)거리가 가장 멀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Haiman의 척도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

2.4 거리에 관한 통사적 분석

황규홍 & 민지영(2006)과 민지영(2006)은 지각구문과 사역구문의 보충어절에 따른 의미 분석에 있어서 Haiman(1983)과 Givón(1993)의 도상적 분

석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들은 문장 속에서 요소간의 언어적 거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이를 통사적으로 분석하였다.

- (19) a. I saw the man who is my neighbor come out of the theater.
b. I saw that the man came out of the theater.
c. I saw the man coming out of the theater.

위의 (19a)에서 saw와 come 사이의 언어적 거리가 가장 멀게 나타난다. 그러면 (19a)에서 saw와 come사이의 언어적 거리가 가장 멀다고 말할 수 있는가? 도상성의 거리의 원리에 입각해서만 대답하면 그리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언어와 개념적 거리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통사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역동사 비정형 보충어절의 성분성 (constituency)과 범주화(categorization)의 개념을 가져온다. 여기서 그들은 사역동사를 분석적 사역구문 중 원형부정사를 보충어절로 취하는 경우만을 다룬다. 먼저 성분으로써 사역동사의 보충어절을 살펴보자.

- (20) a. I made/ helped/ had/ let [John examine me] and [Mary leave early].
b. Bill made/ helped/ had/ let [John jump] and [Mary run].

여기서 John examine과 Mary leave는 나란히 쓰일 수 있고 John jump와 Mary run도 병렬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역동사 보충어절 전체가 하나의 성분임을 알 수 있다.

사역동사 보충어절이 하나의 성분임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 (21) a. I helped [my parents get *myself through ...]
b. Mary_i helped [the children_j carry each other_{*i/j}'s groceries].

(21a)에서 하위 영역 안에서 myself가 누구를 지시하는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myself가 보충어절 안에 있다면 이 문장은 비문이 된다. (21b)에서 each other는 children을 의미하는 것이지 Mary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괄호로 묶은 사역동사의 비정형 보충어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성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성분성 시험의 마지막은 허사(expletives)인 there이나 it을 비정형절의 주어로 삼는 것이다.

- (22) a. Let [TP there T-∅ be peace on earth].
b. Make [TP it T-∅ be known that John is a fool].
c. Agatha Christie had [TP it T-∅ turn out that the butler was the murderer].³⁾

it과 there같은 허사가 문장의 주어자리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의 문장에서 it과 there도 비정형절의 주어로 보아야 하고, 이는 it과 there을 포함하는 비정형절이 하나의 절 성분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역구문을 통사적으로 분석할 때 필요한 또 하나의 개념은 사역동사를

3) (22a)와 (22b)는 Gee(1977:467), (22c)는 Ritter & Rosen(1993:542)에서 인용.

TP로 범주화하는 것이다. 위의 문장에서 괄호로 쳐진 부분들은 음운적으로 값이 없는 T를 가진 TP들이다. 게다가 모든 부정사 절이 to나 값이 없는 \emptyset 을 핵으로 하는 TP를 포함한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있다.

(23) a. My lord your son made [TP me to think of this].

(Helena, *All's Well That Ends Well*, I. iii)

b. What would you have [TP me to do]?

(Lafeu, *All's Well That Ends Well*, V. ii)

위의 문장들은 셰익스피어 시대의 영어로 make나 have등의 보충어로 to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고대에는 to가 드러나는 양상이었다가 현대 영어로 넘어 오면서 to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정당화 하는 또 하나의 예는 사역구문을 수동태로 만들어봄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

(24) a. We made [TP John \emptyset leave early].

b. John_i was made [TP t_i to leave early].

c. *John was made leave early. Gee (1922: 467)

위의 문장들에서 (24a)는 사역구문이고 (24b)는 (24a)를 수동태로 만든 것이다. 이처럼 수동의 문장에서는 TP의 T가 to 부정사로 드러남을 알 수 있고 오히려 to부정사를 쓰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 이는 원형 부정사를 보충어절로 취하는 사역구문이 음운적으로 값을 가지지 않는 T를 가지는 TP를 취함을 확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통사적인 분석을 이용한 사역구문의 보충어절의 도상적 의미분석

을 위하여 민지영(2006)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제안한다.

- (25) The fewer and morphologically poorer functional heads C and T are between the matrix verb and the verb in its clausal complements, the closer the conceptual distance between them is.

즉, 상위절의 동사와 하위절의 동사 사이에 수적으로 더 적고, 음운적으로 더 적은 기능적 핵인 C와 T가 나타나는 경우에 그 둘 사이의 개념적 거리도 더 가깝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을 분석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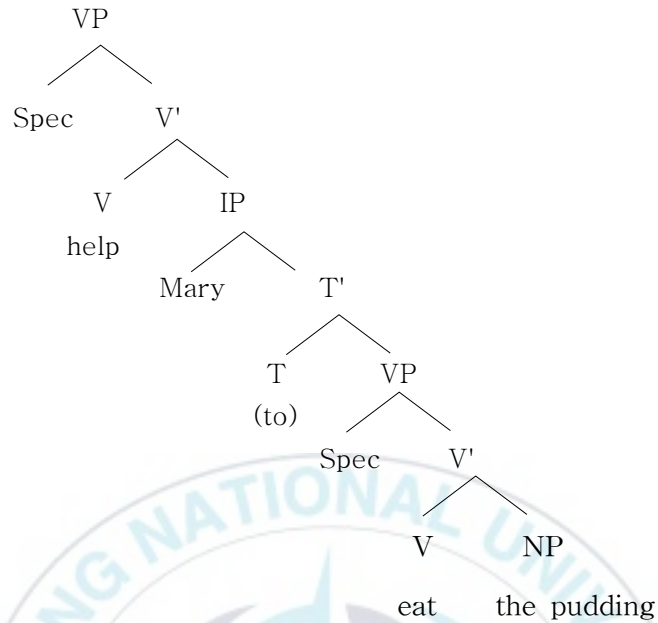
- (26) a. John helped [Mary to eat the pudding].

$V + [_{TP} T\text{-}to VP]$

- b. John helped [Mary eat the pudding].

$V + [_{TP} T\text{-}\emptyset VP]$

(27)



위의 문장들은 같은 수의 기능적 핵인 T를 가지고 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help의 보충어절에서 to가 음운적으로 실현 되는가 되지 않는가의 차이이다. 그러나 민지영의 위에서 언급한 원리를 참고한다면, (26a)보다 (26b)가 더 help와 eat사이의 개념상의 거리가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발화를 시도할 때 개념적으로 'helping'과 Mary's eating'에 대한 가까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to부정사 보충어 보다는 원형부정사 보충어를 취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된다고 주장한다.

Ⅲ. 교과서 분석

3.1 연구대상 및 방법

3.1.1 연구대상

본 논문에서는 제 7차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의해 제작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채택된 고등학교 공통영어 교과서 12종 중 5종을 임의로 선택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사용할 교과서는 교육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할 것이다.

<표1> 분석대상교과서 (시중 고등학교 공통 영어 교과서 5종)

교재명	출판사	본 논문에서 표기
HIGH SCHOOL ENGLISH	지학사	A
HIGH SCHOOL ENGLISH	금성출판사	B
HIGH SCHOOL ENGLISH	와이비엠시사	C
HIGH SCHOOL ENGLISH	천재교육	D
HIGH SCHOOL ENGLISH	중앙교육진흥연구소	E

3.1.2 연구방법

첫째, 고등학교 공통영어 교과서 5종을 채택하여 읽기 자료 내에서 사역 구문을 채집한다.

둘째, 각 사역구문을 그 형태에 따라 어휘적 사역, 어형적 사역, 분석적 사역으로 분류하고 각 교과서별 그 분포를 분석한다.

셋째, 어휘적 사역, 어형적 사역과 분석적 사역내의 통사적 차이를 살펴보고 도상성의 여러 원리 중 거리의 원리를 이용해 의미적 차이를 분석한다.

넷째, 분석적 사역 구문 내에서 비정형 보충절의 의미차이를 분석한다. 비정형 보충절의 종류에 따라 통사적으로 거리상의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의미 차이도 발생하는데 교과서에 나타난 문장들 속에서 비정형절의 종류에 따른 의미의 차이를 밝힌다.

다섯째, 사역구문의 통사 구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을 정리하고 교육에의 시사점을 찾아 제언한다.

3.2 사역 구문 분류와 분석

3.2.1 교과서별 사역 구문 분류

고등학교 공통영어 5종 내의 사역구문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 고등학교 공통영어 5종 내의 사역 구문 분류

	A교과서	B교과서	C교과서	D교과서	E교과서
어형적 사역	11	10	5	14	8
어휘적 사역	49	79	80	72	35
분석적 사역	25	45	39	28	25

위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교과서에서 어휘적 사역이 가장 많은 분포로 나타났고 어형적 사역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또, 각 교과서 별로도 사역구문의 분포에 조금씩 차이가 났는데 이는 교과서 읽기 지문의 유형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각 사역구문에 쓰인 동사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 동사들은 Thompson(1987)과 Saif(1989)의 주장한대로 타동사이며 사역자와 피사역자가 존재하고 사역자가 피사역자의 상태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규정에 부합하는 사역구문들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표3> 고등학교 공통영어 5종 내의 사역 동사

어형적 사역	classify, endanger, encourage, enjoy, brighten, realize, recognize, generalize, summarize, prioritize, shorten, sharpen, enrich, finalize 등..
어휘적 사역	warm, cool, slip on, take, push up, plunge, set, pump up, hold upward, improve, pick up, motivate, put off, carry, share, add, cut, remind, create, grow, bring, place, attract, hit, stop, protect, extend, drop, increase, decrease, injure, prevent, kill, open close, bake, relax, cause, cure, bring up, change, wipe

	out, pass, misplace, throw, draw, destroy, pollute, turn off, pay, save, roll, raise, bend, press, move, blow, send, hurt, kick, reduce, found, build, import, take off slow down, develop, color, plant, awake 등..
분석적 사역	make, let, have, get, help, encourage, cause, allow, force, persuade, direct, want, ask, urge, lead, forbid, order, leave, tell, keep 등..

공통영어 교과서에서 사역 동사들을 분석한 결과 <표3>에서 나타나듯이 어형적 사역동사는 shorten과 sharpen처럼 형용사 뒤에 -en에 붙는 경우, endanger, enrich의 경우처럼 앞에 en-이 붙는 경우, 그리고 finalize, summarize처럼 -ize가 붙는 경우, classify처럼 -fy의 접사가 붙는 경우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어휘적 사역동사는 그 수도 가장 많고 분포도 다양한데 의미론적 입장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어휘적 사역동사는 거의 모든 타동사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분석적 사역동사의 경우에도 학교 문법에서 사역동사로 배우는 have, make, let, help, get 이외에도 ask, persuade, urge등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사역구문을 이루는 분석적 사역동사를 찾을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encourage처럼 어형적 사역동사지만 분석적 사역구문에서도 쓰이는 동사들은 구조에 따라 보충어절을 취하는 경우는 분석적 사역구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형적 사역구문으로 분류하였다.

3.2.2 사역구문 분류별 분석

앞서 도상성의 직접성의 원리 혹은 거리의 원리에서 Haiman(1983: 783)의 주장을 살펴본바 있다. Haiman은 표현 사이의 거리는 그 표현이 묘사하는 내용의 개념상의 거리와 일치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 개념적 거리의 원리를 사역구문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이 거리의 정도가 사역구문에서는 원인(cause)과 결과(effect)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원인과 결과 사이의 개념적 거리가 가까울 때는 사역자가 강한 영향을 미칠 때, 피사역자가 보다 의존적이고, 많은 조작이 결과에 가해질 때이다. 이런 경우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보다 강한 결속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사역구문의 형태 중 결속이 가장 강한 경우는 척도 (F)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동사의 보충어가 동사에 하나의 어휘항목으로 융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어휘적 사역구문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척도 (E)는 형태적 접사가 어휘항목에 붙어서 나타나는 경우이며 사역구문에서는 앞서 살펴본 형태적 사역구문이 이에 속하고, 척도 (D)는 형태소 경계를 넘어서 단어경계까지 포함하는 경우로 사역구문에서는 분석적 사역구문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Haiman의 주장에 의하면 다른 구조를 가지는 이런 사역구문들은 의미적으로도 구별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 사이의 형식적 거리가 개념적 거리와 상응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즉 개념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직접적인 사역의 의미를 지니고 개념적 거리가 멀수록 사역의 의미가 간접적이다.(Lee 1985) 교과서 내의 문장들 속에서 거리의 원리를 적용하여 의미차이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가. 어휘적 및 분석적 사역구문

(27)~(39)의 a는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적 사역구문이고 b는 강제 의미

를 가진 사역동사 make를 사용해 분석적 사역 구문으로 만든 최소대립쌍들이다. 위의 문장들에서 (a)와 (b)의 의미는 표면적으로는 동일하게 보이지만 거리의 원리를 적용하면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구조의 차이에 따른 의미의 차이를 살펴보겠다.

- (27) a. My mother dressed me in my best clothes. (A교과서)
b. My mother made me dress in my best clothes.

(27a)의 경우 엄마가 나에게 직접 옷을 입혀준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27b)는 Haiman의 척도에 따르면 보다 간접적인 의미를 내포하므로, 직접 옷을 입혀준 것은 아니지만 강압적으로 옷을 입게끔 만들거나 지시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28) a. That can kill you. (B교과서)
b. That can make you die.

(28a)는 그것(문맥 속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역자가 직접적으로 당신을 죽일 수 있다는 의미이고, (28b)는 그것이 나를 죽게 하는 행위가 좀 더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즉, 그 사이에 좀 더 부차적인 원인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 (29) a. They cleaned neighborhoods. (C교과서)
b. They made neighborhoods clean.

(29)의 예문을 살펴보면 (29a)는 그들이 직접 이웃을 청소하거나 깨끗하게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29b)에서는 좀 더 간접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청소업체를 통하여 청소하였을 수도 있고, 혹은 이웃들에게 청소하도록 지시해서 직접 청소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 (30) a. Detective Smart calmed down the old man. (D교과서)
b. Detective Smart made the old man calm himself down.

(30a)는 Smart 형사가 늙은 남자를 직접 진정시킨 상황을 나타낸다. (30b)는 Smart 형사가 늙은 남자를 진정시킬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 진정시켰다거나 하는 직접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남자를 진정시킨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인을 제공하는 Detective Smart와 결과 make calm down 사이의 거리는 (30a)보다 멀기 때문이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 (31) a. Her mother crushed the baby's leg. (E교과서)
b. Her mother made the baby's leg get crushed.

(31a)에서는 엄마가 아기의 다리를 직접 부러뜨린 것이고, (31b)의 경우는 엄마가 직접 부러뜨리지는 않았지만 아기의 다리가 부러진 것의 원인이 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예를 들면 아기를 안거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아기의 다리가 부러졌다면 (31b)의 문장이 (31a)보다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경우 이외에도, 이러한 의미적 차이는 어휘적 사역구문을 분석적 사역구문으로 만들어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는데 다음

의 예문들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 가능하다.

- (32) a. Kristi can open cans. (A교과서)
b. Kristi can make cans open.
- (33) a. Karen pushed up her sleeves. (A교과서)
b. Karen made her sleeves up.
- (34) a. We guide students in the right direction. (B교과서)
b. We make students in the right direction.
- (35) a. The computer relaxes you. (B교과서)
b. The computer makes you relaxed.
- (36) a. Bend your knees a little. (C교과서)
b. Make your knees bend.
- (37) a. Petting a dog or cat can reduce a person's blood pressure. (C교과서)
b. Petting a dog or cat can make a person's blood pressure decrease.
- (38) a. In 1846, the government built a natural history museum. (D교과서)
b. In 1846, the government made a natural history museum be built.
- (39) a. The program speed up the attitude change. (D교과서)
b. The program make the attitude change speed up.

- (40) a. Kimchi actually reduces body fat. (E교과서)
 b. Kimchi actually makes body fat be reduced.
- (41) a. Taking medicine cured the disease. (E교과서)
 b. Taking medicine made the disease cured.

이처럼 (a)의 어휘적 사역구문은 인과관계가 아주 직접적이고 (b)와 같은 구조를 취하는 분석적 사역구문은 간접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를 Haiman의 언어척도 공식에 대입해 보면 어휘적 사역구문인 (a)의 문장들은 (F)에 해당되고 (b)의 문장들은 척도 (D)에 해당된다. 이런 방식으로 각 구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역의 의미가 더 간접적이고 독립적일 수록 언어 간의 거리가 멀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경우에서 형태의 차이는 의미의 차이를 암시한다는 도상성의 동기 유발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어형적 및 분석적 사역구문

어휘적 사역 구문뿐만 아니라 어형적 사역 구문도 도상성의 원리로 설명 가능하다. 아래의 각 예문에서 (a)는 endanger, brighten, summarize, shorten 등의 어형적 사역동사가 포함된 어형적 사역구문이고, (b)는 분석적 사역동사 cause를 사용하여 만든 (a)에 대한 최소대립쌍들이다. 도상성의 거리의 원리는 이 두 사역구문의 의미 설명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교과서 내의 예문을 살펴보자.

- (42) a. Water pollution and coastal development endanger marine

life.

(A교과서)

b. water pollution and coastal development cause marine life to be in danger.

(42)예문에서 (42a)는 ‘수질 오염과 해안 개발이 해양생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라고 이해가능하다. (42b)는 수질 오염과 해안 개발이 해양생물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 방법이 (42a)만큼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해양생물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간접적인 역할을 한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43) a. You should summarize your speech. (B교과서)

b. You should cause your speech to be summarised.

(43a)는 내가 직접 너의 연설문을 요약해야 한다는 경우이고 (43b)는 너는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 하는 방법으로 연설문을 요약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44) a. Playing with a pet encourages body movement. (C교과서)

b. Playing with a pet causes body movement to be developed.

(44a)는 애완동물과 노는 것은 신체 운동을 직접적으로 촉진시키는 것이고 (44b)에서는 애완동물과 노는 것이 신체 운동을 촉진시키고 장려하는 정도가 간접적이다.

(45) a. I shorten my visit to Whistler's paintings. (D교과서)

b. I cause my visit to Whistler's paintings to be short.

(45a)는 내가 직접 나의 방문시간을 단축해버린 경우이고 (45b)는 내가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해서 결론적으로 내 방문시간이 줄어든 상황을 나타낸다.

(46) a. You can enjoy the robot. (E교과서)

b. You can cause the robot to be joyful.

(46a)는 사역자가 로봇 자체를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46b)는 로봇에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거나 로봇을 작동시켜 로봇이 즐거운 것이 되도록 하게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a)와 (b)의 문장 모두를 사용한다하여 틀린 것은 아니지만 두 문장이 어감의 측면에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인식의 거리를 반영하고 있음은 분명하고 화자는 자신의 인식이 반영된 의도를 가지고 사역의 구문을 발화할 것이다.

Haiman의 언어 척도에서도 어형적 사역인 (a)는 척도 (E)에 속하고 분석적 사역 중에서도 보충어절에 to 부정사를 취하는 (b)는 척도 (C)에 속해 그 만큼의 의미적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어휘적 및 어형적 사역구문

그렇다면 표면적으로는 동일해 보이는 어휘적 사역구문과 어형적 사역구문사이에는 사역의 직접성에 차이가 있을까? 있다고 할 수 있다. Haiman의 척도 상에서 어휘적 사역은 (F), 어형적 사역은 (E)에 속해 척

도상 다른 거리를 나타낸다. Haiman은 척도에 나타난 형태들이 도상적으로 사건 X와 사건 Y 사이의 개념적 거리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는 개념적 거리는 사역의 직접성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결국 어휘적 사역구문과 어형적 사역구문은 사역의 직접성이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교과서 내의 다음 예문들에서 살펴보자.

- (47) a. The stupid dentist took it out instead of repairing it. (A교과서)
- b. I used to bake cookies. (B교과서)
- c. It hurt my pride. (C교과서)
- d. Ipbun shakes earth off the root. (D교과서)
- e. I see drivers throw their cigarette butts out of the window. (E교과서)

(47)의 문장들은 모두 어휘적 사역구문의 예문들인데, (47a)는 의사가 이를 고치는 대신 빠지게 한 상황이고, (47b)는 사역자가 쿠키를 굽는 상황을 (47c)는 내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상황을 (47d)는 Ipbun이가 풀을 흔들어 뿌리에서 흙을 털어내는 상황을 (47e)는 운전자들이 창문 너머로 그들의 담배꽂초를 던져버리는 상황을 각각 나타낸다. 이 모두는 사역자가 직접 행위를 하여 피사역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을 뜨거나 흙을 털어내거나 담배꽂초를 던져 버리는 장면에서 다른 우회적인 상황이나 방법을 상상하기는 힘들다.

- (48) a. I was looking for a way to brighten the lives of poor children in Minneapolis. (A교과서)

- b. We can generalize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preparation is presentation strategies. (B교과서)
- c. His main task is to encourage young people. (C교과서)
- d. He sharpened the saw. (D교과서)
- e. He somehow managed to finalize the marriage. (E교과서)

(48)는 모두 어형적 사역구문들이다. (48a)는 가난한 아이들의 삶을 밝게 하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밝히는 것은 등불을 가지고 시각적으로 직접 밝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거나 희망적인 미래를 제공한다거나 하여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무엇을 밝히는 것보다 우회적이라 할 수 있다. (48d)는 그가 톱을 날카롭게 만들다로 해석 가능한데 grind the saw(톱을 갈다)가 아니라 sharpen the saw(톱을 날카롭게 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방법상의 다양성을 암시하여 보다 더 간접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8e)도 finalize the marriage라고 표현함으로써 그의 결혼에 사연이나 우여곡절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개념상의 시간을 finalize the marriage라는 표현이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3 분석적 사역구문

3.3.1 (to)-부정사 구문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어떤 사역의 동사들은 원형부정사를 보충어절로 취

하고 어떤 사역동사들은 to부정사를 보충어절로 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먼저 교과서 내에서 나타나는 사역 동사들의 종류와 분포를 살펴 보자.

<표4> 공통영어 교과서 내의 분석적 사역동사의 양상

분석적 사역 종류	A교과서	B교과서	C교과서	D교과서	E교과서
make	3	16	10	8	7
let	1	7	6	6	7
have	1		3		1
help	10	8	4	6	5
get			1		
allow		1	1		2
persuade	1	1			
direct					1
keep		3	5	1	1
cause				1	
want	2	1	2	1	2
tell		2	2		
encourage	2	3		1	
ask	2	2	1	2	
leave		1	1		
order			1	1	
forbid			1		
force	1				
urge	1				
lead	1				
합계	25	45	38	27	26

교과서에 나타난 사역동사 가운데 let, have, make는 원형부정사를 보충어로 취하고 cause, ask, persuade, force 등의 나머지 동사들은 보충어절로 to부정사를 가지며 help는 경우에 따라서 모두를 보충어절로 취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이러한 보충어절의 양상에 따라 거리의 원칙을 적용하면 의미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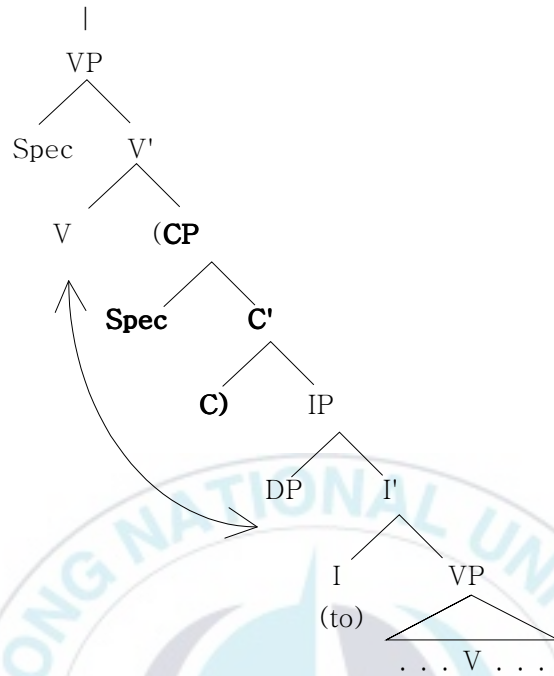
앞서 도상성의 거리의 원리에 이용해 각 사역구문간의 의미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도상성의 원리는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사역구문간의 의미 차이뿐만 아니라 사역 구문 내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 (49) a. Ondol is designed to make you feel comfortable. (E교과서)
b. Ondol is designed to cause you to feel comfortable.

위의 두 문장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9a) make feel는 Haiman의 언어척도 (D)에 속하는 것으로써 (C)에 속하는 (49b)의 cause to feel 보다는 더 직접적인 사역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49a)에서는 온돌이 당신을 편안한 기분을 느끼도록 직접적인 작용을 함을 의미하고 (49b)는 온돌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당신이 편안함을 느낀다 정도의 보다 간접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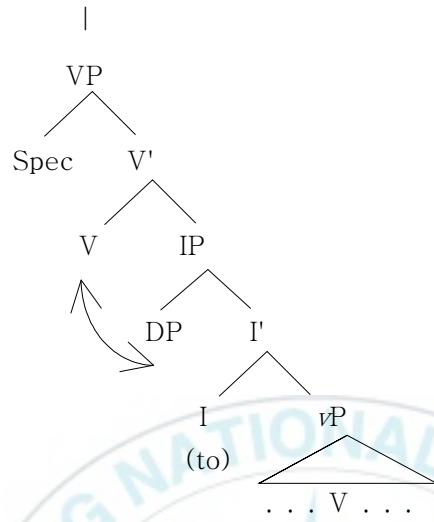
이러한 거리상의 차이는 통사적으로 문장을 분석해 봄으로써 살펴볼 수도 있다. 분석적 사역구문의 기본적 문장형상(configuration)의 틀을 Pollock(1989)에서 제시한 기능범주에 두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된다.

(50)



그러나 어휘 출현의 여부와 순서가 문장 구조를 결정한다는 Baker(1992)의 거울 이론(Mirror Principle)과 도출 과정에서 필수 요소만 남게 된다는 최소주의(Minimalist Program)에 따르면, 완전 정형 구조(50)의 CP 범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사역구문에서 하위절의 접속사는 언제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50)은 (51)의 구조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절 경계에 해당하는 CP가 제거된 상태로 결국 상위동사는 하위 절주어와 인접한 형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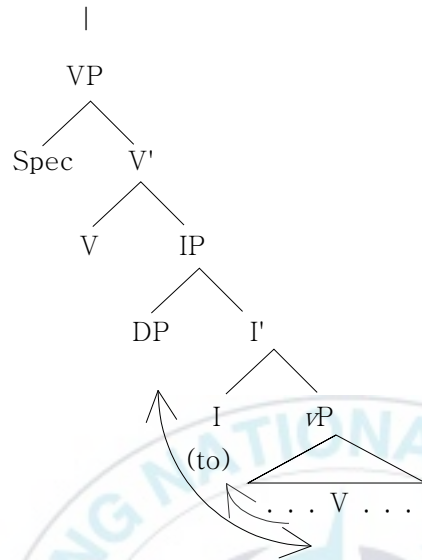
(51)



(51)의 구조는 상위절 동사와 하위절 주어사이의 생략에 의해 거리가 짧아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제 하위절의 주어와 원형동사 사이의 도상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해보자.

(52)



사역구문의 특징은 IP의 핵자리에 to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to가 나타나지 않을 때 동사 V가 I자리로 상승이동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Pesetsky(1989), Johnson(1991), Koizumi(1993, 1995) 등은 다음의 문장에서 the dictionary와 George 각각 동사와 접어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사 이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동사 이동의 양상을 살펴보자.

- (53) a. John looked the dictionary up quickly.
 b. Mickey made George out to be a liar. (Johnson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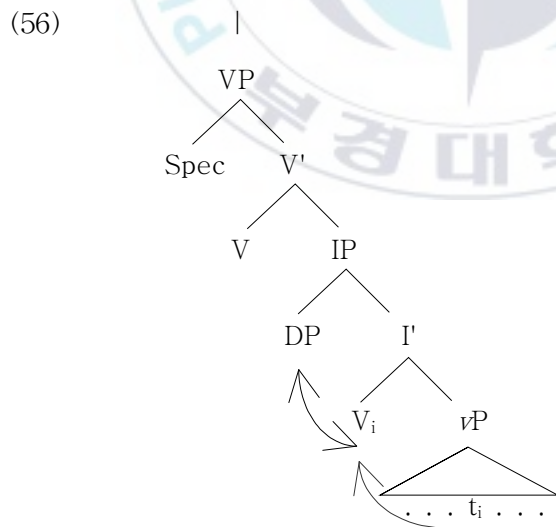
즉, (53a)의 어순은 (54)에서처럼 [_v looked up]에서 동사 looked 만이 I로 상승이동하고 목적어 the dictionary는 VP에 부가이동 함으로써 도출된다는 것이다.

(54) John [_I looked] [_{VP} the dictionary [_{VP} t up t quickly]]

(53b)의 어순 역시 동사 [_V made out]에서 동사 made가 I 자리로 이동하고 George가 상위절로 상위 동사구에 부가 이동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55) Mickey [_I made] [_{VP} George [_{VP} t out [_{IP} t to be a liar]]]

이들의 동사이동 제안을 받아들이면, (54)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도출과정을 유지하게 된다.



(56)에서처럼 동사는 상위 I 자리로 상승이동하고 그 결과 (54)에서 이동하

기 전보다 주어 DP와 통사적으로 근거리를 이루게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사역구문에 대한 분석적 접근에서 하위절의 주어는 상위 사역동사와 그리고 하위동사는 그 주어와 근거리를 이루게 되어 Haiman이 주장하고 있는 단어사이의 거리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근거리를 이룬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러면 이러한 거리의 차이의 차이에 따른 의미차이는 어떻게 될까? 즉, 어떤 경우에 to부정사를 취하는 사역구문을 쓰고 어떤 경우에 원형부정사를 보충어적으로 취하는 사역구문을 쓸 것인가? 이는 각 사역동사의 의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교과서에 나타난 좀 더 많은 사역 구문들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 (57) a. The horse's movements make her use some of the same muscles. (A교과서)
 b. Stand up and let your voice be heard. (B교과서)
 c. Doctors say it help patients use the muscles they need. (C교과서)
 d. The air will be warmed, and this will gradually cause the global climate to change. (D교과서)
 e. I'll have my children visit Korea some day. (E교과서)
- (58) a. At 5:30 a.m. I asked my father to drive me to hospital. (A교과서)
 b. He persuaded others to accept his view. (B교과서)
 c. He forbade his soldiers to marry. (C교과서)
 d. My aunt encouraged me to go alone. (D교과서)

e. When she wants you to do a role play, she calls your name. (E교과서)

Givón(1983)은 사역동사 보문구조에 따른 의미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사의 의미적 척도를 만들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59)

<i>Semantic scale of verbs</i>	<i>syntax of COMP-clause</i>
a. She let go of the knife	CO-LEXICALIZED VERB
b. She made him shave	BARE-STEM COMP VERB
c. She let him go home	
d. She had him arrested	
e. She caused him to switch jobs	INFINITIVE COMP VERB
f. She told him to leave	
g. She asked him to leave	
h. She allowed him to leave	
I. She wanted him to leave	
j. She'd like him to leave	
k. She'd like for him to leave	FOR-TO COMP
l. She suggested that he should leave	MODAL-SUBJUNCTIVE
m. She wished that he would leave	
n. She agreed that he could leave	
o. She knew that he left	INDIRECT QUOTE
p. She said that he might leave later	
q. She said: "He might leave later"	DIRECT QUOTE

Givón의 의미상의 척도는 사역구문의 동사와 그 양상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의미적 차이도 척도상 위쪽에 있는 것일수록 더 직접

적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더 간접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위의 교과서 내의 예시들에서 (57a)~(57e) 이들 구문은 의미적으로 주어 시켜서 피사역자가 그 행동을 실제로 하는데 성공했음을 나타낸다. (58a)에서 ask는 요청의 의미로 화자가 아버지에게 병원에 태워다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지만 실제로 아버지가 병원에 태워다 주셨는지는 이 문장만 가지고는 확인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문장 외 다른 문장이 추가되어 의미를 뒷받침하는 경우만이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교과서 상의 문맥 속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고 계속 잠만 자는 경우로 상황이 전개된다. 또, (58c)에서 forbid는 금지를 나타내는 사역동사로 그는 그의 병사들이 결혼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 하지만 실제로 그의 병사들이 결혼하지 않았는지는 부가적인 문장들 없이는 알 수 없다. (58e)의 경우에서도 숙모는 내가 혼자 가기를 설득하였지만 실제로 화자가 그렇게 하였는지는 이 문장만을 통해서 알 수 없다.

3.3.2 소절 구문

지금까지 분석적 사역구문에서 보충어절에 원형부정사와 to부정사가 오는 경우 의미상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역동사의 보충어절에 항상 원형부정사나 to부정사가 위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들은 어떻게 해석 가능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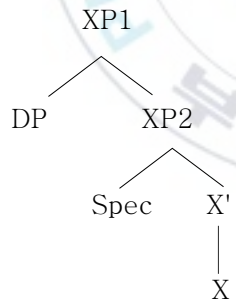
- (60) a. She wants everyone back. (A교과서)
 b. Keep your introduction short and interesting. (B교과서)
 c. They left their work undone. (C교과서)

- d. Here are seven habits that will make your teenage life a success. (D교과서)
- e. Jack stopped to help him up. (E교과서)

(60)의 문장들은 분석적 사역동사의 보충어 자리에 부사, 형용사, 명사를 보충어로 취하고 있다. 그러면 이 경우 앞에서 살펴보았던 두 종류의 분석적 사역구문과는 어떤 의미차이가 날까? 앞서 분석한 내용대로 구문의 단어 상의 거리를 살펴보면 위의 문장들은 to부정사를 보충어로 취하면 분석적 사역구문보다는 원인과 결과간의 거리가 가까워보인다. 그러면 이러한 보문절로 소절(small clause)을 취하는 구문들이 어떤 통사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소절이란 다음과 같이 하위절이 의미적으로는 절을 구성하고 있지만 형태적으로는 계사(copula)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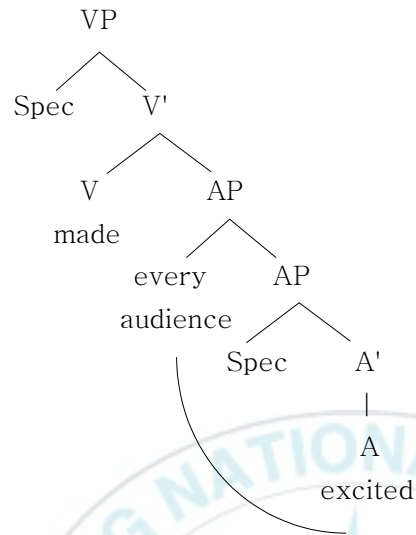


여기서 XP는 AP/NP/PP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구조의 특징은 술부에 Infl.도 V도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분석을 사역구문에 적용시키면 다음의 결과가 도출된다.

(62) The singer made every audience excited.

(63)



(63)에서처럼 도상성 이론은 분석적 접근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AP의 지정어 자리의 every audience는 사역동사 made에 그리고 하위 서술어 excited에 근접해있기 때문에 도상성 이론에서 제시하는 의미적 관계가 잘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다.

(64) a. The singer made every audience excited.

b. The singer caused every audience to be excited.

이 경우에 Haiman의 거리상의 척도를 확대시켜 보면, 다음의 예문에서 (64a)는 가수가 직접적으로 청중들을 즐겁게 만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64b)는 가수가 청중들을 즐겁게 만든 것이 간접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충어절로 소절을 취하는 경우, 거리상의 차이에 의한 의미상의 차이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비정형절의 주어와도 관련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사역구문의 보충어절로 소절이 오면 비정형절의 주어가 세세한

(detail) 의미로 해석하고, 보충어절로 to부정사를 취하면 더 일반적인 (general) 무엇이나 포괄적인 것을 의미한다.(Quine 1956)
그러면 (65)의 예를 의미적으로 살펴보자.

(65) a. The singer made every audience excited.

b. The singer caused every audience to be exc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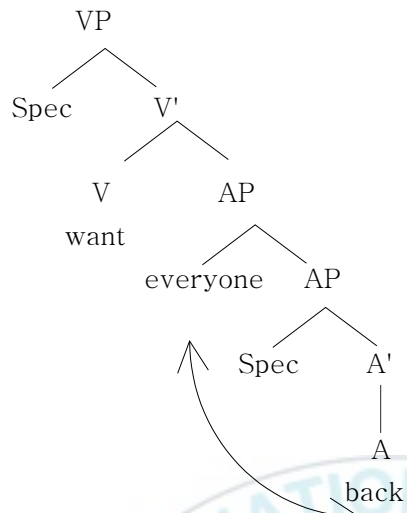
(65a)에서는 사역동사 make의 보충어절로 excited라는 소절이 왔으므로 관객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이 가능하다. 즉 (65a)는 그 가수가 관객 한 명 한명을 모두 즐겁게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65b)는 사역동사 make의 보충어절로 to be excited를 취했으므로 every audience가 하나의 집단으로써의 관객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다. 즉 그 가수가 관객들을 즐겁게 한 것의 의미이다. 아주 미묘하긴 하지만 이 두 문장의 구조에 따른 의미적 차이는 분명히 발생하는 것 같다. 교과서상의 예문을 가지고 살펴보자.

(66) a. She wants everyone back. (A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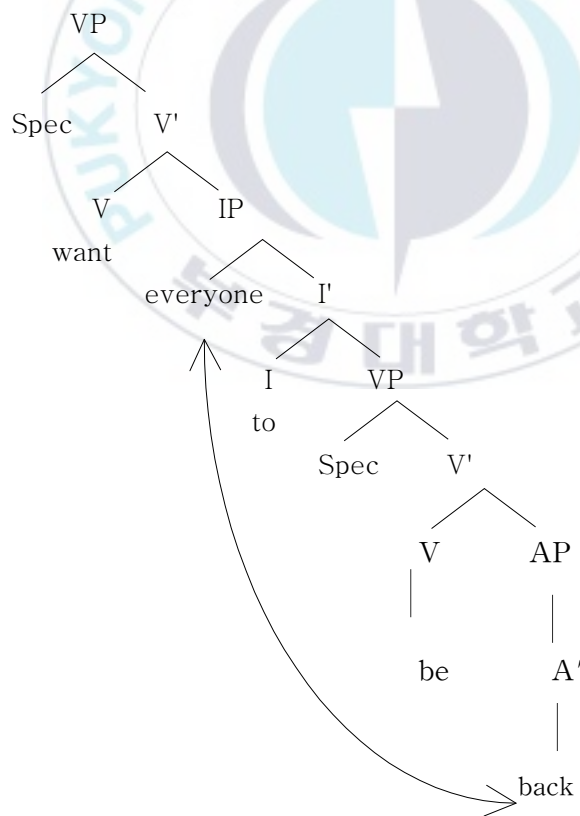
b. She wants everyone to be back.

(66b)는 (66a)의 보충어절로 to 부정사를 취하는 경우로 만든 문장이다. 먼저 구조상의 차이를 살펴보자. (66a)와 (66b)는 단어 사이의 거리 이외에도 통사적으로도 그 거리에 있어 차이를 볼 수 있다.

(67) a.



b.



위의 구조를 통해서 (67a)와 (67b)사이의 구조상의 거리차이를 살펴보았다. 위의 구조적인 차이에 따라 의미상의 차이가 나며, 소절을 보충어절로 가지는 (67a)에서 everyone는 개인 한명 한명을 다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고 to부정사절을 보충어절로 가지는 (67b)의 everyone은 집단으로서의 모두를 말한다.

3.4 분석에 대한 정리

이 장에서는 교과서 내의 예문을 중심으로 사역구문을 어휘적 사역구문, 어형적 사역구문, 분석적 사역구문으로 분류하였고 그 분포와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도상성의 이론의 여러 원리들 중 거리의 원리를 이용하여 먼저 어휘적 사역구문과 분석적 사역구문을 비교하고, 또 어형적 사역구문과 분석적 사역구문을 비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어휘적 사역구문과 어형적 사역구문을 비교하였다. 이 세 가지 사역구는 Haiman의 거리의 척도상 거리가 다르게 나타났고 사역자가 피사역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인 원인과 결과의 직접성에도 차이가 났다. 어휘적 사역이 Haiman의 척도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그 직접성의 측면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사역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은 어형적, 그 다음은 분석적 사역구문의 순으로 직접성이 떨어졌다.

분석적 사역구문 내에서도 사역동사의 통사적 양상에 따라 to부정사절, 원형부정사절, 소절을 취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먼저, 사역동사의 비정형 보충어로 원형부정사를 취하는 경우와 to 부정사를 취하는 경우를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 이 두 경우는 Haiman의 척도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통사적인 층위상의 차이도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사역동사

의 보충어절에 to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는 하위절의 동사가 infl. 자리로 상승이동 하기 때문에 그 층위상의 거리를 좁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원형부정사를 취하는 make, let, have 등의 동사는 사역자가 피사역자에게 행위를 가하여 피사역자의 행동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경우를 의미하고, to부정사를 취하는 want, ask, encourage, persuade 등의 동사들은 그 영향이 미치는 정도가 간접적이고 약하여 사역자가 피사역자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실제로 하위절의 동사가 실현되었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분석적 사역 구문 내에서는 보충어절로 to부정사와 원형부정사가 오는 경우 외에도 형용사나 부사와 같은 소절이 위치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소절의 경우 Haiman이나 Givón의 척도 상 그 거리차이가 확실히 구별되지는 않지만 통사적 분석을 통해 to부정사를 취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소절의 경우 to부정사를 취하는 경우보다 거리상의 차이가 적어 의미상으로도 to부정사를 취하는 경우보다 좀 더 직접적인 사역임을 분석하였다. 사역구문의 보충어절로 소절이 오는 경우 단어들 사이의 거리뿐만 아니라 통사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그 거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거리의 차이에 따른 의미차이도 있었다. 이러한 거리상의 차이에 따른 직접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소절을 취하는 경우에는 피사역자의 구체성의 정도에서도 차이가 났다. 즉, 사역구문의 보충어절로 소절이 오면 구체적인 피사역자를 지칭하고 to 부정사가 올 때는 피사역자가 특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도상성의 거리 원리를 이용하여 사역구문을 의미적, 통사적으로 분석하여 사역구문의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의미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역구문은 크게 어휘적 사역, 어형적 사역, 분석적 사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어휘적 사역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사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사역의 원인과 결과가 그 어휘 속에 모두 함유되어 있는 동사를 의미한다. 어형적 사역은 형용사나 부사에 en-, -en, -ize, -fy 등의 접사가 붙어서 사역의 의미를 가지게 된 사역동사를 의미한다. 분석적 사역은 우리가 흔히 사역동사라고 부르는 have, make, let 외에도 cause, persuade, permit, ask 등을 포함하고 피사역자와 보충어절이 따르는 구조를 취한다.

사역구문에 대하여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지만, 교실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습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본 논문은 사역구문의 분석에 있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접근을 위해 도상성(iconicity)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도상성은 언어가 사람의 인지를 반영하고 따라서 언어 형태와 의미사이에는 유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도상성에는 크게 네 가지 원리가 존재하는데, 이 중 거리의 원리는 Haiman(1983)의 주장처럼 언어의 형태상의 차이는 의미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주장이다. Givón(1985, 1993) 역시 도상성 이론을 주장하며, 동사의 형태에 따라 정형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며, 이러한 정형성의 정도는 거리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교과서 내에 나타나는 세 종류의 사역구문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고 교과서 내의 예문들을 대상으로 어휘적 사역구문과 분석적 사역구문을 비교 분석하고, 어형적 사역구문과 분석적 사역구문을, 어휘

적 사역구문과 분석적 사역구문을 비교 분석하였다. Haiman의 척도 상 각 구문은 거리적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어휘적 사역구문이 척도의 가장 아래에 있어 거리가 가장 가깝고, 그 다음은 어형적 사역구문, 그리고 분석적 사역구문이 거리가 가장 먼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직접성이라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데 어휘적 사역이 가장 직접적인 사역을 나타내고 분석적 사역구문이 덜 직접적인 것으로 나타내었다. 이를 중심으로 교과서 상의 예문들을 의미차이를 중심으로 해석해보았다.

분석적 사역동사의 보충어절은 to부정사, 원형부정사, 소절이 나타났고 각각을 비교하여 형태적, 통사적인 차이와 의미 차이도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보충어절로 원형부정사와 to 원형부정사를 취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Haiman의 척도 상에서도 다른 척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통사적인 분석에서도 사역구문의 비정형 보충어절에 to가 발현되지 않는 경우 하위절의 동사가 상승 이동한다는 제안들을 빌려 그 거리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른 의미적 차이도 발생하였는데, 보충어절로 원형부정사를 취하는 경우 동사의 의미 자체 내에 사역자가 피사역자에게 영향을 미쳐 하위절의 동사의 내용을 실현하게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반에 to부정사를 보충어절로 취하는 경우는 사역자가 피사역자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피사역자가 하위절의 동사를 실현시키는 것을 성공하는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서 사역의 의미가 to가 실현되는 경우보다 적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보충어절로 소절을 취하는 경우는 Haiman의 척도나 Givón의 사역동사의 보문구조에 따른 척도 상에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거리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통사적인 분석을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통사적으로 to부정사를 취하는 경우보다 소절의 취하는 경우 사역자와 피사역자 간의 거리가 좁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도상성의 거리 원리를 적

용하여 보면 소절을 취하는 경우 더 직접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 가능하다. 또 그리고 이러한 직접성에 있어서의 차이 이외에도 두 경우는 피사역자의 구체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소절을 취하는 경우 구체적인 피사역자를 지칭하는데 반해 to부정사 절을 취하는 경우 피사역자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형태상의 차이에 의미차이가 있다는 도상성 이론이 사역구문의 분석과 해석에 많은 차이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have, let, make등이 사역동사이고 원형부정사를 취한다는 언어규칙만 가르칠 뿐 적절한 의미적인 차이를 설명할 교수 학습상의 참고자료가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거리 차이를 살펴보고 교과서상의 문장들로 그 의미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사역구문을 교수하고 학습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이기동. (1994). 『영어동사의 문법』 신아사.
- 임지룡. (1999). 『인지 의미론』 탑출판사.
- 김광현. (2003). "영어 사역구문의 도상적 분석." 『언어과학』 10권, 1-21.
한국언어과학회.
- 박정운 (2003). "한국어 사동 구문의 의미." 『언어』 28권 3호, 345-371.
한국언어학회.
- 황규홍 & 민지영. (2006). "영어 사역동사 보충절의 통사구조." 『동아논
총』 42권, 51-61. 동아대학교 출판부.
- Authier, J-M. (1991). "V-Governed Expletives, Case Theory, and the
Projection Principle." *LI* 22, 721-740.
- Baker, M. (1985). The Mirror Principle and Morphosyntactic
Explanation. *Linguistic Inquiry* 16, 373-416.
- Bolinger, D. (1977). *The Form of Language*. London: Longman.
- Bybee, J. (1985a). "Diagrammatic Iconity in Stem-inflection Relations,"
Haiman. J. (eds.) *Iconity in Syntax*, 11-47. Amsterdam: John
Benjamins.
- Clark, H. & E. Clark. (1977). *Psychology and Languag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Comrie, B.(1985). Causative verb formation and other verb-deriving
morphology. In Timothy Shopen.(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Grammatical categories and the lexicon*,
309-348.
- Cooper, E. & Ross, R. (1975). Word Order. *CLS Functionalism*, 63-111.

- Fodor, J. (1970). Three Reasons For Not Driving 'Kill' From 'Cause To Die'. *Linguistic Inquiry* 1, 429–438.
- Givón, T. (1983).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 Givón, T. (1985). "Iconicity, Isomorphism, and Non-Arbitrary Coding in Syntax" J. Haiman (ed.), *Iconicity in Syntax*. Amsterdam : John Benjamins.
- Givón, T. (1993). *English Grammar II*. Amsterdam : John Benjamins.
- Greenberg, J. (1966). *Language Universals*. Hague: Mouton Publishers.
- Haiman, J. (1980). "Iconicity of Grammar, Isomorphism and Motivation", *Language* 56: 515–540.
- Haiman, J. (1983). "Iconic and Economic Motivation," *Language* 59: 781–819.
- Johnson, K. (1992). "Object Positions," *NLLT* 9: 577–636.
- Kayne, R. (1985). "Principles of Particle Constructions," In Gueron, J. et al. (eds.) *Grammatical Representation*, Foris Publication: Dordrecht.
- Koizumi, M. (1993). "Object Agreement Phrases and the Split VP Hypothesis," in Bobaljik J. and C. Collins (eds.) *Papers on Case and Agreement I*: MITWP 18, MIT.
- Pesetsky, D. (1989). "Language-Particular Processes and the Earliness Principle," *ms*. MIT.
- Lee, H-S. (1985). "Causative in Korean and the Binding Hierarchy," *CLS* 21: 138–153.
- Lehrer, A. (1985). Markedness and Antonymy. *Journal of Linguistics*

21: 397-426.

McCawley, J. (1968). "Lexical Insertion in a Transformational Grammar without Deep Structure," *CLS* 4: 71-80.

Min, J-Y. (2006). "Iconicity in English Minimal Pair Clausal Complements and Its Generative Account." *Language Sciences* vol 13. 255-277.

Pollock, J-Y. (1989). "Verb Movement, UG and the Structure of IP," *LI* 20, 363-425.

Quine, V. (1956). Quantifiers and Propositional Attitudes. *Journal of Philosophy* 53: 177-87.

Saif, A. (1989). *English Causative Verbs Ending in -en, -fy, and -ize*. Ph.D.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Shibatani, M. (1975). *Syntax and Semantics 6: The Grammar of Causative Construc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Sweetser, E. (1997). "Role and Individual Interpretations of Chang Predicates," in Nuyts, J. and E. Prederson. (eds.), 116-136. *Language and Conceptu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omson, J. (1987). "Verbs in Action," *Synthese* 72: 103-122

Yang, I-S. (1972). *Korean syntax: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Seoul: Baekhap Publishing Co.